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시호가 갑자기 말하되, “국가의 맡은 임무가 무겁기에 나아감과 물러감을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순천부는 부모님의 고향이 되었으니 어찌 차마 영영 이별하겠습니까? 우리 형제 국가의 일에 바빠서 조상의 산소에 자주 성묘도 못할 것이니 형은 충성으로서 황제를 돕고 아우인 저는 벼슬을 물러나 형수와 아내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의 묘 아래에 머물면서 산소를 돌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한림이 옳다 하시고 황성에 올라가 황제께 공손히 절하고 그 소원을 아뢰니, 황제가 ㉔ 기특하게 여겨 말하기를, “충신은 원래 효자의 집안에서 난다고 했는데 부모를 위하고자 하니 짐이 어찌 말리겠는가?”

하며 시호를 허락하시더라.

시호가 황제를 하직하고 윤부인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와 선산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지극한 정성으로 하며 집안 다스리기를 ㉕ 엄숙하게 하더라. 또 문과 무를 겸전할 뜻이 있어 손자와 오자 등 병서의 근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몸을 민첩하게 하는 육도삼략과 바람과 비를 부릴 수 있는 기술을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더라.

[A] 각설이라. 이때 한림이 몸을 국가에 허락하였기에 사랑하는 동생을 서둘러 이별한 뒤 자주 만나보지도 못하고 소식도 서로 통하지 못하는 가운데 말하기를, “지금 조정은 소인이 가득하여 나라의 일은 시간이 갈수록 잘 못되어 가니 이 형의 마음은 항상 칼날 위에 앉아 있는 느낌이고 우물가에 서 있는 아이의 심정이다.”

라는 글을 써 보내고 스스로 ㉖ 탄식(歎息)함을 마지아니하더라.

조물주가 시기하여 어진 충신을 다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룡인들 어찌 무사하겠는가?

[중략 부분 줄거리] 엄송의 모함으로 시룡이 유배되고, 형이 죽은 줄 안 시호는 강물에 투신하나 구출된다. 이후 대원수가 된 시호는 역모를 꾀한 엄송을 잡고 유배가 끝난 시룡은 시호가 죽은 줄 알고 황용사의 승려가 된다.

시호가 황제에게 아뢰되, “내가 원수를 아직까지 살려두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황제가 말하기를, “그대의 마음대로 처리하라.”

하니 즉시 나와 엄송을 묶어서 잡아내어 궁중에 꿰어앉히고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역적 엄송아. 나라의 녹봉을 받는 신하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거늘 망극하게도 나라의 은혜를 배반하고 무엇이 부족하여 무식한 가달과 내통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느냐? 너의 행위는 너

르고 큰, 하늘과 땅 사이에서도 ㉗ 용납(容納)할 수 없는 죄로써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느냐? 또한 어진 승상을 축출하고 권력을 ㉘ 독점(獨占)할 생각으로 나의 선친과 화목하지 못하였으며 전혀 무죄한 내 형을 모함하여 먼 곳에 유배를 가게하고 또 가다가 죽게 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역적이자 나의 끝없는 원수다. 내 스스로 너를 처치하리라.”하고 청용검으로 점점이 깎아 죽이더라.

황제가 한림을 불쌍하게 여겨 품계를 올려 충열공이라 하고 시체를 고향을 모셔오라고 하더라. 그 때 전국에서 백성들이 병이 들어 무수하게 죽거늘 황제가 원수를 불려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들으니 전쟁 후에 백성들이 무수하게 병이 들어 죽는 다하니 이것은 약으로는 ㉙ 감당(堪當)하지 못할 듯하다. 경은 집을 대신하여 황용사에 가서 제를 올려라.”

하시니 원수가 명을 받들어 황용사에 찾아갈 날짜를 미리 알리더라.

나라의 일이 많아서 그 사이 집에 들리지 못하였기에 한 장의 편지를 써서 윤씨 형수에게 보내고 그날 출발하여 황용사로 가니 그 위엄이 서리같이 엄숙하더라.

[B] 이날 황용사에 도착하여 주위를 깨끗이 정돈하고 머리를 ㉚ 단정하게 빗은 후에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에게 제사를 올릴 때에 제를 올리는 자리

에 한림이 함께 참석을 하였더라. 그러나 슬프다. 원수는 감동하여 있지마는 마음이 한 곳으로만 쏠려 있고 또한 승려와 속세의 사람이 서로 다르니 어찌 서로 죽은 동생이며 죽은 형인 줄 알겠는가?

원수가 그 승려의 목소리를 듣고 속으로 탄식하여 말하기를, “천하에 이같이 나의 형과 꼭 같은 목소리도 다 있구나. 형의 목소리와 정녕 꼭 같으나 한 번 죽었으니 어찌 이곳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밤이기에 서로 얼굴을 살피지 못하고 서로 의심만 하더라. 원수가 제를 마친 후에 묵는 곳에 돌아와 형을 생각하니 눈물이 저절로 나고 한림도 동생을 생각하여 눈물이 솟아나더라. 이것은 마음도 지극히 중한 윤리와 기강의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 윤리와 기강이 아니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원수가 이날 밤에 꿈을 꾸니 법당에서 노승이 노래를 지어 부르되, “반갑도다. 반갑도다. 춘풍 소식 반갑도다. 죽었던 초목도 다 꽃이 피어 봄빛을 상대하니 무수한 들매화 층층이 떨어졌다.” 하거늘 원수가 그 말을 듣고 깨달으니 동방이 밝았더라. 또한 한림이 꿈속의 일이 이러하므로 의심하고 있더니 대원수가 법당에 나아가 분향하고 두 번 절한 후에 관세음보살의 화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거늘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원수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원수는 무슨 일로 관세음보살 화상을 보시고 슬

퍼하십니까?” 원수가 대답하기를, “나는 선친을 생각하여 슬퍼 하거니와 스님은 무슨 까닭으로 얼굴에 슬픈 빛을 품고 나의 눈물 흘리는 까닭을 묻습니까?” 한림이 대답하기를, “소승은 순 천부에 살더니 동생을 잃고 매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니 마음이 서로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한림이 원수를 대하여 말하기를, “소승이 ㉔ 황송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뉘 덕이라 하십니까?”

원수가 대답하기를, “부친께서 승상 벼슬을 지내신 까닭으로 목승상 덕이라 합니다. 대사는 성명이 무엇입니까?”

한림이 슬픈 얼굴빛으로 변하며 말하기를, “소승도 본래 이름 있는 집안의 자손으로 국가의 은혜가 끝이 없어 한림학사 벼슬을 했는데 엄승상의 참소를 입어 먼 곳으로 유배를 당하였다가 동생을 잃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소승의 본래 이름은 목시룡이로소이다.”

하니 원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며 말하기를, “나는 시호로소이다.”

그저 이렇게 손을 잡고 모르는 사람처럼 보다가 큰소리로 울면서 말하기를, “꿈인가. 생시인가. 동생아. 꿈에 왔느냐? 마음도 아니로다. 악양루 물에 빠진 동생이 아니냐?”

하고 서로 구르며 통곡하니 처량한 울음소리가 푸른 하늘에 ㉕ 사무치고 초목과 금수라도 다 ㉖ 슬퍼하는 듯하더라.

-작자미상, 「목시룡전」-

##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의식 변화를 입체적인 구성 방식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작품 개입을 통해 인물의 처지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와 행동 묘사를 병치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설정하여 초현실적 분위기 속에서 인물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 02

윗글의 시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모의 고향인 순천부로 돌아가 선산을 돌보는 것을 자식으로서의 도리라 여겼다.
- ② 고향에 머무는 동안 병법서를 탐독하며 문무를 겸비하기 위한 수련에 정진하였다.
- ③ 황제의 명에 따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황용사로 향했다.
- ④ 엄승을 처단할 때 그의 죄목 중 하나로 자신의 형을 모함하여 죽게 한 것을 들었다.
- ⑤ 황용사에서 제를 올린 직후 승려의 목소리를 듣고 형의 생존을 확인하며 그를 찾아냈다.

## 03

시룡(한림)의 심리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생과 이별한 뒤 조정의 소인들로 인해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워짐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 ②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 동생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황용사의 승려가 되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
- ③ 황용사에서 제를 올리는 원수의 위엄을 보고 자신의 초라한 처지와 대비되어 자괴감을 느낀다.
- ④ 꿈속에서 노승의 노래를 들은 후 동생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법당을 지킨다.
- ⑤ 관세음보살 화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원수를 보고 그가 자신의 동생임을 확인하여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 04

밑줄 친 ㉔~㉖의 문맥적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나라의 일이 잘못되어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쉬고 한탄함.
- ② ㉕: 도덕적 범주를 벗어난 악행이 세상의 이치 안에서 수용됨.
- ③ ㉖: 전염병의 확산세가 너무 거세어 인간의 힘으로 제어하기 어려움.
- ④ ㉔: 슬픔의 감정이 매우 깊고 강렬하여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간절함.
- ⑤ ㉖: 인물들의 비극적 재회 장면을 지켜보는 주변 만물이 애도함.

## 0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황제가 신하의 사적인 욕망을 공적인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 시호가 고향에 돌아와서도 집안을 엄격하고 바르게 다스렸음을 드러낸다.
- ③ ㉢: 엄승이 권력을 독점하려 한 동기가 경제적 이익의 편취에 있었음을 암시하여 그의 탐욕을 부각한다.
- ④ ㉤: 제사를 앞둔 시호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가 지닌 내면의 불안과 초조함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 시룡이 상대의 신분을 확인하기 전에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먼저 드러내어 동정심을 유발하려 한다.

## 06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 간의 소통 단절로 인한 오해를, [B]는 종교적 의례를 통한 오해의 완전한 해소를 보여준다.
- ② [A]는 외부적 시련으로 인한 인물의 심리적 위기를, [B]는 혈육이 한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나타낸다.
- ③ [A]는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B]는 현재의 긴장된 대결 상황을 감각적 묘사로 구체화한다.
- ④ [A]는 인물의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는 공간을, [B]는 인물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 ⑤ [A]는 정치적 갈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B]는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 0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 소설에서 '충(忠)'과 '효(孝)'는 인물이 지향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 등장한다. 대개 주인공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잊지 않는 '충효 겸전'의 인물로 설정된다. 그러나 때로 충과 효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인물은 공적인 의무인 충을 우선시하거나, 가족 공동체의 안위를 지키는 효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질서에 기여하는 방식을 택한다. 또한, 악인에 의한 시련은 주인공의 충효 의지를 시험하는 장치가 되며, 초월적 존재나 꿈, 천륜(天倫)의 이끌림은 흩어진 가족이 재결합하는 서사적 필연성을 부여한다.

- ① 시호가 형은 충성으로 황제를 돕고 자신은 효도로 부모를 모시겠다고 한 것은 충과 효의 가치를 분담하여 실현하려는 절충적 태도로 볼 수 있겠군.
- ② 황제가 시호의 귀향을 허락하며 '충신은 효자의 집안에서 난다'고 언급한 것은 효라는 사적 가치가 충이라는 공적 가치의 토대가 됨을 인정한 것이겠군.
- ③ 엄승이 시룡을 모함하여 유배 보낸 시련은 주인공 형제가 지닌 충효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악인의 방해 공작이자 서사적 갈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겠군.
- ④ 시호와 시룡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도 제를 마친 뒤 각자 형과 동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천륜의 이끌림이 두 형제의 재결합을 이끄는 힘으로 작용한 것이겠군.
- ⑤ 시호가 엄승을 처단하며 '나라의 역적'이자 '나의 원수'라고 규정한 것은 사적인 복수심을 공적인 정의보다 우선시하여 충효의 가치를 통합하려는 시도겠군.

## 08

윗글에서 '제사(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쟁 후 병으로 죽어 가는 백성들을 위해 황제의 명으로 올리는 공적인 의례이다.
- ② 시호가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임무이자, 그가 지닌 충성심을 증명하는 실천적 행위이다.
- ③ 흩어졌던 형제가 한 공간에 모이게 되는 서사적 계기를 제공하여 재회의 물리적 토대가 된다.
- ④ 시룡이 승려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세속의 신분으로 복귀할 것을 결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전환점이다.
- ⑤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물들이 무의식적으로 혈육의 정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배경이 된다.

## 09

윗글의 사건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호의 귀향 제안은 형제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가문의 안위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동시에 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 ② 시호가 고향에서 닦은 문무의 재능은 이후 엄송의 역모를 진압하고 대원수의 지위에 오르는 현실적 기반이 되었다.
- ③ 엄송의 처단 장면은 인물의 대사를 통해 그의 죄상을 열거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 ④ 시호와 시룡이 황용사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시호는 승려의 외양 때문에 그가 자신의 형임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 ⑤ 노승이 나타나 노래를 부르는 꿈은 비극적 상황의 종결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 10

시호가 엄송을 꾸짖는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켜 상대의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있다.
- ② 상대의 죄상을 공적인 차원과 사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처벌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상대의 반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황제의 명령임을 강조하여 압박하고 있다.
- ④ 상대가 저지른 행위의 결과가 국가 전체에 미친 악영향을 수치로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상대의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비판하며 현재의 처지가 자업자득임을 깨닫도록 유도하고 있다.

## 11

윗글의 '재회 장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호와 시룡이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형제를 떠올리는 것은 혈육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시각적 정보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②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인물들이 서로의 얼굴을 즉각 확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회의 순간을 지연시키고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③ 노승이 부르는 노래 속 '춘풍 소식'과 '꽃이 피어'는 죽음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가족 공동체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 ④ 시룡이 자신의 본명을 밝히는 행위는 승려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버리고 유교적 가족 질서 속의 개인으로 돌아오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 ⑤ 재회 후 두 인물이 통곡할 때 '초목과 금수라도 다 슬퍼하는 듯'하다고 묘사한 것은 인물들의 기쁨이 너무 커서 자연물조차 시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12

윗글에 나타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호의 효심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가의 인재를 잃을까 염려하여 그의 귀향을 한때 주저하였다.
- ② 엄송의 역모를 미리 간파하고 시호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그를 처단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 ③ 죽은 줄 알았던 시룡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그의 품계를 높여주고 시신을 수습하도록 명하였다.
- ④ 백성들의 질병이 전쟁의 상흔임을 깨닫고 시호에게 직접 약을 조제하여 배포할 것을 명령하였다.
- ⑤ 시호와 시룡의 재회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황용사를 제사 장소로 선택하여 시호를 보냈다.

## 13

마지막 문단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 슬퍼하는 듯하더라'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의 개인적 슬픔이 사회적 차원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재회의 기쁨보다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후회가 인물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인물들이 느끼는 격정적인 감정이 주변 세계 전체로 투사되어 비극적 숭고미를 형성한다.
- ④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인물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자연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된다.
- ⑤ 혈육의 정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인간을 넘어 자연계의 질서까지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14

윗글에서 언급된 '윤리와 기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의를 갖추게 만드는 외적인 규범이다.
- ② 꿈속의 노승이 노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종교적 가르침이자 해탈의 경지이다.
- ③ 형제가 서로의 정체를 알기 전에도 마음이 이끌리게 만드는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힘이다.
- ④ 엄승과 같은 역적을 처단하기 위해 국가가 신하들에게 요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이다.
- ⑤ 신분과 종교의 차이를 극복하고 만인이 평등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근대적 가치이다.

## 15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설이라'와 같은 상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제를 전환하고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 ② 인물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서리(霜)나 춘풍(春風)과 같은 자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장면의 분위기나 인물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심리를 묘사할 때 설의적 의문을 던져 독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사건의 인과관계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우연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 01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③ 서술자가 작품 개입을 통해 인물의 처지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출제의도]

고전소설 특유의 서술자 개입 및 편집자적 논평을 인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정답 풀이]

- ③ 윗글에서 "조물주가 시기하여 ~ 시룡인들 어찌 무사하겠는가?", "윤리와 기강이 아니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등의 표현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상황을 논평하거나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내면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부분은 있으나, 그것이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하는 주된 장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공간 이동은 나타나지만, 인물의 의식이 입체적으로 변화하는 구성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대화와 묘사가 나타나지만,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빈번하므로 객관적 전달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꿈이 재회의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운명을 암시하는 몽환적 구조는 아니다.

## 02 내용의 세부적 이해

정답: ⑤ 황용사에서 제를 올린 직후 승려의 목소리를 듣고 형의 생존을 확신하며 그를 찾아냈다.

###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사건의 인과관계와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했는지 확인한다.

### [정답 풀이]

- ⑤ 시호는 승려의 목소리를 듣고 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탄식했으나, "한 번 죽었으니 어찌 이곳에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의심만 했을 뿐 생존을 확신하여 찾아낸 것은 아니다. 실제 재회는 다음 날 꿈을 꾸 후 법당에서 이루어졌다.

### [오답 풀이]

- ① 첫 문단에서 순천부가 부모의 고향이므로 산소를 돌보러 가겠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확인된다.  
 ② 고향에서 손자, 오자 등 병서를 파악하고 육도삼략 등을 익혔다는 서술에서 확인된다.  
 ③ 황제가 전쟁 후 병들어 죽는 백성들을 위해 제를 올리라고 명하자 이를 받들어 황용사로 갔다.  
 ④ 엄승을 꾸짖을 때 "무죄한 내 형을 모함하여 ~ 죽게 하였으니"라고 언급하며 원수임을 명시했다.

## 03 인물 심리 및 태도

정답: ① 동생과 이별한 뒤 조정의 소인들로 인해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워짐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와 서술을 통해 특정 시점의 심리적 고뇌를 정확히 읽어내는지 평가한다.

### [정답 풀이]

- ① [A] 구간에서 한림은 조정에 소인이 가득하여 나라 일이 잘 못되어 감을 우려하며, 자신의 마음이 "칼날 위에 앉아 있는 느낌"이자 "우물가에 서 있는 아이의 심정"이라고 표현하며 국가 안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 [오답 풀이]

- ② 시룡은 동생이 죽은 줄 알고 승려가 된 것이지,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③ 원수의 목소리를 듣고 동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을 뿐, 자괴감을 느끼는 서술은 없다.  
 ④ 꿈을 꾸고 의심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동생의 생환에 대한 확고한 희망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⑤ 한림은 원수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과 집안을 먼저 물었고, 원수가 '목승상 댁'이라 답하며 성명을 묻자 그제야 이름을 밝혔다. 동생임을 확신하여 먼저 이름을 밝힌 것이 아니다.

## 04 어휘의 문맥적 의미

정답: ② ㉠: 도덕적 범주를 벗어난 악행이 세상의 이치 안에서 수용됨.

### [출제의도]

한자어 및 고어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정답 풀이]

- ② ㉠ '용납(容納)'은 지문에서 엄승의 죄가 너무 커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선지의 '수용됨'은 문맥과 정반대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 '탄식'은 나라 걱정에 한숨을 쉬며 한탄하는 맥락에 부합한다.  
 ③ ㉢ '감당'은 약으로 병을 다스리거나 이겨내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④ ㉣ '사무치고'는 감정이 빠져리게 깊게 스며들거나 통하는 상태를 뜻한다.  
 ⑤ ㉤ '슬퍼하는'은 인물들의 통곡에 동화된 자연물의 상태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05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정답: ② ㉥: 시호가 고향에 돌아와서도 집안을 엄격하고 바르게 다스렸음을 드러낸다.

### [출제의도]

특정 어휘가 인물의 태도나 장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② '엄숙하게'는 시호가 고향에 돌아와 선산을 지극한 정성으로 지키는 한편, 집안 다스리기를 엄격하고 바르게 하였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 ① ㉠ '기특하게'는 황제가 시호의 효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③ ㉢ '독점'은 권력을 혼자 차지하려는 정치적 야욕을 뜻하며, 지문에서 경제적 이익 편취가 주된 동기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④ ㉣ '단정하게'는 제사를 대하는 정성스러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지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⑤ ㉤ '황송하지만'은 승려로서 대원수에게 말을 거는 예의를 갖춘 표현이지 동정심 유발을 위한 의도적 장치는 아니다.

## 06 구간의 기능 및 의미 분석

정답: ② [A]는 외부적 시련으로 인한 인물의 심리적 위기를, [B]는 혈육이 한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나타낸다.

[출제의도]

지문의 주요 구간을 비교 분석하여 서사적 기능과 주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② [A]에서 시룡은 조정의 소인들로 인해 위태로움을 느끼는 심리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B]에서는 한림이 제사 자리에 함께 참석했으나, 서술자가 '그러나 슬프다.'라며 승려와 속세의 사람이 서로 다르니 형제인 줄 알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오답 풀이]

- ① [B]에서 재회의 계기가 마련되기는 하지만, 그 시점에서 오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③ [B]는 대결 상황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경건한 상황이며, 두 형제의 정서적 공명이 중심이다.  
④ [A]에 인물의 도덕적 결함은 나타나지 않으며, [B]에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⑤ [B]에서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갈등을 중재한다는 서술은 지문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

## 07 보기 종합 감상

정답: ⑤ 시호가 엄승을 처단하며 '나라의 역적'이자 '나의 원수'라고 규정한 것은 사적인 복수심을 공적인 정의보다 우선시하여 충효의 가치를 통합하려는 시도였군.

[출제의도]

유교적 가치관인 충효 사상을 바탕으로 작품의 서사 구조와 인물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감상한다.

[정답 풀이]

- ⑤ 시호가 엄승을 '나라의 역적'이자 '나의 원수'라고 부른 것은 충(국가적 정의)과 효(가족의 원수 갚음)가 일치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사적 복수심을 공적 정의보다 '우선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두 가치가 결합되어 처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형제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과 효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모습은 유교적 가치의 병행 추구에 해당한다.  
② 황제의 발언은 효심이 깊은 자가 국가에도 충성한다는 당시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③ 엄승의 모함은 주인공의 충성심과 형제애(효의 확장)를 시험하고 고난을 겪게 하는 전형적인 악인의 역할이다.  
④ 서로 알아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형제가 각자 서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서술자가 이를 '윤리와 기강의 영향'이라 한 것은 천륜의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 08 소재의 의미와 역할

정답: ④ 시룡이 승려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세속의 신분으로 복귀할 것을 결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전환점이다.

[출제의도]

특정 소재나 사건이 서사 전개와 인물의 심리에 미치는 다각적인 기능을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④ 제사는 시룡과 시호가 만나는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제사 자체를 통해 시룡이 승려 신분을 벗기로 결심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시룡은 제사 도중에도 승려로서 참석하고 있었으며, 신분 복귀는 재회 이후의 일이다.

[오답 풀이]

- ① 황제가 전쟁 후 병든 백성들을 위해 제를 올리라고 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시호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충성심과 경건함이 드러난다.  
③ 제사라는 사건 덕분에 시호와 시룡이 황용사라는 동일한 공간에 위치하게 된다.  
⑤ 제사의 엄숙함 속에서 두 인물이 서로의 목소리와 슬픔에 반응하며 정서적 공명을 일으킨다.

## 09 전개 방식 및 구성

정답: ④ 시호와 시룡이 황용사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 시호는 승려의 외양 때문에 그가 자신의 형임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출제의도]

사건의 선후 관계와 인물의 심리적 반응을 지문의 세부 서술과 대조하여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지문에서 시호(원수)는 승려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형과 똑같은 목소리도 다 있구나"라며 탄식하고 "서로 의심만 하더라"라고 서술되어 있다. 즉, 전혀 의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형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오답 풀이]

- ① 시호가 형은 충성하고 자신은 산소를 돌보겠다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된다.  
② 병서를 공부하고 기술을 익혔다는 서술은 이후 대원수가 되는 복선이 된다.  
③ 엄승을 끌어앉히고 그의 배반과 모함을 꾸짖는 장면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보여준다.

- ⑤ 꿈속의 '춘풍 소식', '꽃이 피어' 등의 표현은 죽은 줄 알았던 형제와의 재회를 상징한다.

## 10 담화 분석 및 말하기 방식

정답: ② 상대의 죄상을 공적인 차원과 사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처벌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를 분석하여 논리적 구조와 수사적 특징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시호는 엄승에게 '나라의 은혜를 배반하고 가달과 내통한 죄'(공적 역적)와 '나의 선친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 형을 모함하여 죽게 한 죄'(사적 원수)를 모두 언급하며 그를 처단하겠다고 선언한다.

[오답 풀이]

- ① 양심에 호소하여 뉘우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확정하고 처벌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③ 황제의 명령임을 언급하기보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부분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⑤ 비유적 비판보다는 직접적인 꾸짖음과 죄목 나열이 주를 이룬다.

## 11 재회 모티프의 이해

정답: ⑤ 재회 후 두 인물이 통곡할 때 '초목과 금수라도 다 슬퍼하는 듯'하다고 묘사한 것은 인물들의 기쁨이 너무 커서 자연물조차 시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출제의도]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재회 모티프와 표현 기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⑤ '초목과 금수라도 다 슬퍼하는 듯하다'는 표현은 인물들의 처절한 통곡과 슬픔에 자연물도 동화되어 함께 슬퍼한다는 의미(감정이입)이지, 인물의 기쁨을 시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재회의 순간은 기쁨과 동시에 그간의 고통에 대한 회한이 섞인 통곡의 시간이다.

[오답 풀이]

- ① 목소리를 통해 형제를 떠올리는 장면은 천륜에 의한 정서적 반응을 강조한다.  
② 밤이기 때문에 얼굴을 살피지 못했다는 서술은 재회의 극적 효과를 위한 장치이다.  
③ 꿈속의 이미지는 비극을 끝내고 찾아올 긍정적인 변화(재회)를 암시한다.  
④ '목시룡'이라는 이름을 밝힘으로써 승려 '소승'에서 사대부 '한림'이자 '형'으로 복귀한다.

## 12 황제의 역할 이해

정답: ③ 죽은 줄 알았던 시룡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그의 품계를 높여주고 시신을 수습하도록 명하였다.

[출제의도]

지문에 나타난 보조 인물의 행위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지문 중반부에 황제가 한림(시룡)을 불쌍하게 여겨 품계를 올려 충열공이라 하고 시체를 고향으로 모셔오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명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황제는 시호의 청을 듣고 "짐이 어찌 말리겠는가?"라며 즉시 허락했다.  
② 엄승을 처단할 때 시호에게 "그대의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지, 미리 간파하고 조종한 것은 아니다.  
④ 백성들의 병은 약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여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지, 약을 조제하게 한 것이 아니다.  
⑤ 황제가 제사를 명한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지, 두 사람의 재회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 13 정서적 공명과 배경

정답: ③ 인물들이 느끼는 격정적인 감정이 주변 세계 전체로 투사되어 비극적 숭고미를 형성한다.

[출제의도]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고양과 표현 효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③ 형제가 서로를 확인하고 통곡하는 장면에서 그 슬픔이 하늘에 사무치고 초목과 금수까지 슬퍼한다는 묘사는, 인물의 감정이 극대화되어 온 세상이 함께 울어주는 듯한 장엄하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오답 풀이]

- ① 개인적 슬픔이 재회를 통해 해소되는 과정이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② 후회의 감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장면의 핵심은 재회의 충격과 그간의 고통에 대한 분출이다.  
④ 이 장면은 절망감이 아니라 재회의 격정이 표출되는 순간이며, 신분적 한계와는 무관하다.  
⑤ 자연계의 질서를 '재편'한다는 설명은 문학적 수사를 과도하게 논리적으로 해석한 오류이다.

## 14 개념의 정밀 분석

정답: ③ 형제가 서로의 정체성을 알기 전에도 마음이 이끌리게 만드는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힘이다.

[출제의도]

지문 내에서 특정 개념이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지문에서 두 형제가 서로 의심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장면 뒤에 "이것은 마음도 지극히 중한 윤리와 기강의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유교적 천륜(윤리)이 무의식중에 작용하여 형제를 이끌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단순한 외적 예의범절을 넘어서는, 마음 깊은 곳의 이끌림으로 묘사되어 있다.
- ② 노승의 노래는 재회의 복선이지, 윤리와 기강 그 자체를 설명하는 교리는 아니다.
- ④ 역적 처단과 관련된 공적 질서보다는 형제간의 사적이고 근원적인 정(친륜)에 가깝게 묘사되었다.
- ⑤ '윤리와 기강'은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이며, 만민 평등과 같은 근대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 15 서술 기법의 효과

정답: ⑤ 사건의 인과관계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우연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 [출제의도]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서술 특징과 윗글의 실제 서술 방식을 대조하여 이해한다.

### [정답 풀이]

- ⑤ 고전소설인 윗글에는 꿈에서 노승을 만나거나, 우연히 같은 절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등 '우연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치밀하여 우연성을 배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각설이라'는 장면 전환 시 사용되는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서술 방식이다.
- ② 결말 부분에서 시룡이 자신의 과거 행적을 시호에게 말하는 대화가 이에 해당한다.
- ③ 시호의 위엄을 '서리'에, 재회의 기쁨을 '춘풍'에 비유한 표현들이 나타난다.
- ④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등 서술자의 설의적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한다.